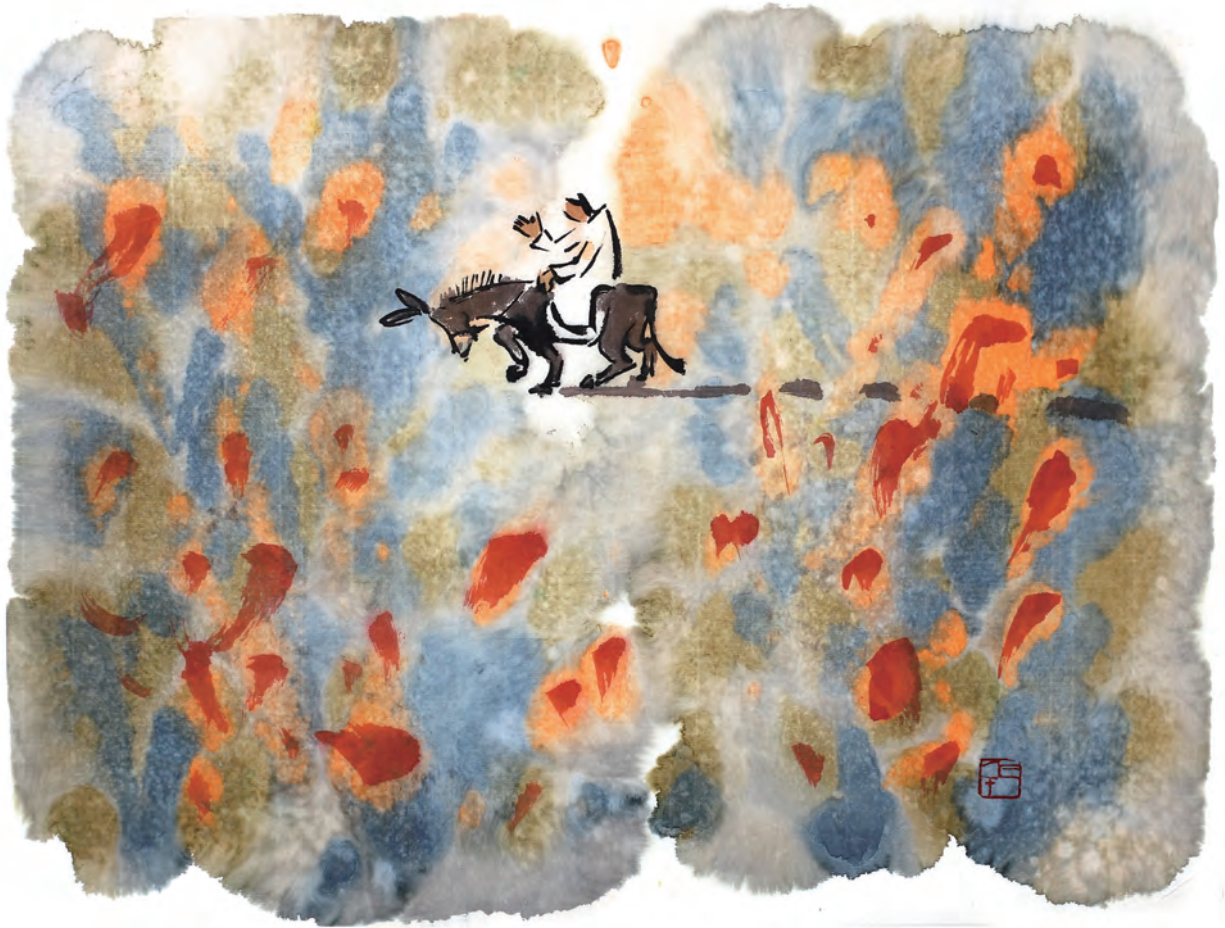


서울 주보

제2606호
2026년 3월 29일(가해)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입당송 | 요한 12,1.12-13; 시편 24(23),9-10

제1독서 | 이사 50,4-7

화답송 | 시편 22(21),8-9,17-18 ㄱ.19-20,23-24(㉔ 2ㄱ)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입술을 비쭈거리며 머리를 내젓나이다. “주님께 의탁했으니 구하시겠지. 그분 마음에 드니 구해 내시겠지.” ◎

○ 개들이 저를 에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 수 있게 되었나이다. ◎

○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주님, 멀리 떠나 계시지 마소서. 저의 힘이신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

○ 저는 당신 이름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모임 한가운데에

서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께 영광 드러라.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

제2독서 | 필리 2,6-11

복음환호송 | 필리 2,8-9 참조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 마태 26,14-27,66(또는 27,11-54)

영성체송 | 마태 26,42 참조

아버지, 이 잔을 비켜 갈 수 없어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십자가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김수규 사도요한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분부장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전례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스도의 수난기’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이 길에 겔옷과 나뭇가지를 깔고,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신들의 세속적인 기대가 채워지기를 바라며 예수님께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중들의 마음과 표정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수난과 죽음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표정에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수난기’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자 제자들은 흩어졌고, 베드로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어떠한 저항이나 원망도 없이 고난 받는 종(이사 50,5 참조)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시며,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필리 2,8 참조)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신과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증오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마태 20,28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목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로마 8,35 참조)

우리의 세상살이는 참 쉽지 않고, 그만큼 죄의 유혹도 많습니다. 그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우리 마음 안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죄로 상처 입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2코린 5,14)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1코린 16,13-14)

그림 해설

풍경 하나 | 환호의 대열에 섰던 사람들과 불목의 대열에서 웅크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리저리 몰려 다니는 부화뇌동 사이를 뚫고, 그 다음의 시간을 바라볼 줄 아는 깨어 있는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눈길을 붙잡습니다. 붉고 푸른 아우성이 뼈라처럼 뒹구는 신작로를 지나, 고요한 내 일상의 삶터로 성지를 옮겨 갑니다. 바라볼 때마다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올 이 성지를!

글·그림 하삼두 스테파노 | 작가



이번 달 말씀의 이삭은

'SBS 가톨릭 교우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바쁜 회사 생활 와중에도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돌리하며 기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신앙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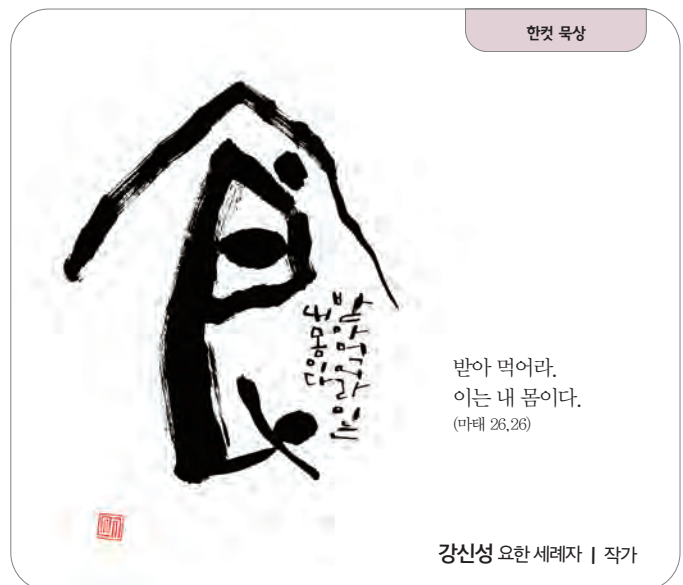
최영인 아녜스 | SBS 스튜디오 프리즘 자문-PD

‘리액션’이 준비돼 있으신가요?

10년 전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회사에서 일이 생겨서 마음 정리를 하고자 간 길이었습니니다. 함께 길을 걷던 신부님께서 뭔가 지향을 두고 걸으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해 주셨는데 과연 나는 나의 소중한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신부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올해 안에 첫 영성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아들은 당시 대학 1학년, 유아세례 후 거의 냉담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는 10월, 두 달밖에 안 남은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겠다는 싶었지만 그냥 걸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기적처럼 그해, 아들이 첫 영성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뻐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한 아들이 아니었기에 아이 마음을 바꾸는 건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래서 하느님께 맡기고 기도했는데, 그 지향이 정말 빨리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적같은 일을 나누며 즐겼습니다.

그 이후로 10년, 제게 또 변화가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30년 일한 정든 SBS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당황했지만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던 퇴사 6일차에 갑자기 아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성당에서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니! 너무 놀라고 또 기뻐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초부터 성실한 신앙생활을 결심하며 지향한 바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겪고도 세월이 흘러 기억은 희미해지고 전 다시 게으른 신자가 됐거든요.) 바로 ‘첫 영성체만 받고 또 여전한(냉담자) 우리 아들이 주님을 가까이하면 좋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10년 전 산티아고 일도

떠올랐고 ‘내 신앙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 안에 살짝 남았던 자그마한 앙금까지도 획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저에게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일이 너의 지금 상황을 상쇄할 만큼 좋은 일이야?” 당연히 했습니다. 정말로 그건 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잘 알기에 더 기뻐 벅찬 일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별로 열심히 기도한 거 같지도 않은데... 왜 이리 잘 들어주실까?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사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해석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그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능 피디로 35년 일한 저는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느님께서도 필듯이 좋아하는 리액션을 보는 게 즐거우셨던 거 아닐까?’ 그래서 더 빨리 기도를 들어 주신 게 아닐까? 혼자만의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하. 그러나 저는 외쳐봅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리액션’이 준비돼 있으신가요? 리액션이 준비돼 있을 때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한컷 묵상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 26,26)

강신성 요한 세례자 | 작가

청소년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려줍시다



신윤민 요셉 신부 | 살레시오회

어느 날 함께 사는 한 친구가 고민이 있다며 저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사연인즉슨 같이 방을 쓰고 있는 형들이 자신을 너무 귀여워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답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화김에 형들에게 대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들한테 호되게 혼만 나고, 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3인 16살이었고, 키는 또래 친구들보다 작고 왜소했습니다. 한창 남자답게 멋있어야 할 나이에 귀여움이라니... 말을 듣고 보니 그 친구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 대화를 나눈 후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의 평소 행동은 성숙했니?” 친구는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그 친구는 장난도 많이 치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을 자주 해서, 형들 사이에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던 차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외모에 대한 선입견이 더해져 ‘아, 이 친구는 키도 작고 왜소해서 장난이 심하구나.’ 하고 형들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그 친구는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저의 행동이 원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 문제는 네 외모가 아니라 행동이야. 내면의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으면, 키가 크든 작든 아무도 너를 우습게 보

지 않아.”

심리적인 사춘기에 청소년의 몸은 그대로 자신의 영혼을 반영합니다. 특별히 얼굴은 글자 그대로 ‘정신을 드러내는 매개체’가 됩니다. 더 좋게 말하자면, 얼굴은 청소년이 자신만의 길을 열고자 스스로에게서 자아를 찾아가는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를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즉 ‘존재론적 자아’는 육체를 외면적인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선택하고, 자신을 거의 그것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안에 아름다워지고 싶은 열망이 더욱 정교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발견하게 될 때, 특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결함을 마주할 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에 동반하는 우리 어른들은 외적인 아름다움(키나 외모)과 내적인 아름다움(기쁨으로 빛나는 눈과 얼굴)을 구별해야 함을 청소년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 사이의 조화로운 일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아름다움 중에서 항상 선호해야 하는 것은 영혼에서 생겨나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너를 아름답게 만드셨단다.”



성경 | '성경'은 2026년 한 해에 걸쳐 마태오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복음의 주요 특징부터 시작해, 목상이 필요한 주요한 지점을 짚어가며 독자들과 함께 마태오복음을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우식 베드로 | 성서신학자

우리는 모두 유혹에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내공이 있는지 냉철하게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활에 나서기에 앞서 광야에서 이런 유혹에 직면하셨습니다. 유혹자든 악마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건드립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마태 4,3)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마태 4,6)

예수님은 세례 때 두 가지 놀라운 체험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영이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마태 3,16 참조) 다른 하나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만 겪으신 일인지 모두가 다 겪은 일 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으로 시작하는 유혹은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각자가 품고 있는 자 의식과 가치관에서 유혹의 속삭임이 들려오는 법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져온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인 기적을 일으키신 적이 있습니다.(마태 14,13-21 참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군중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빵을 나누어 먹었다는 식으로 합리적인 이해를 하려 하기도 하고, 예수님

께서 놀라운 능력을 펼쳐 보이셨다는 식으로 신비적인 것이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군중을 가없이 여겨 병자들을 고쳐주셨듯이,(마태 14,14 참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고고픈 마음도 들으셨을 법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앞으로 더 가면 바로 유혹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 능력을 인정받고 싶고 드러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면 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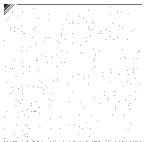
사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세 가지 유혹에는 당신께서 공생활에서 거듭 맞부닥쳤던 사건이 드리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위치에 있던 대사제는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마태 26,63) 하고 재촉했고,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마태 27,40) 하고 모독했으니까요.

예수님께서서는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성경 말씀 세 마디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 4,4)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마태 4,7)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마태 4,10) 이러저러한 유혹에 끌릴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며 마음을 다스려 보면 어떨까요?

특집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사순 제6주일이자 성주간 시작입니다. 전례력상 가장 독특한 미사 구조를 지니는 미사 중 하나인데, 미사 시작 전 성지 축복과 행렬이 먼저 거행된 후, 본 미사에서는 예수님의 수난 복음이 봉독됩니다. 기쁨의 환호로 시작해 십자가 죽음의 묵상으로 이어지는, 극적인 전환이 이 날 전례의 특징입니다. '성지(聖枝)'는 종려나무 잎이나 올리브 가지가 전통적으로 쓰였으며, 한국에서는 주로 사철나무나 대나무 가지를 사용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환호하며 흔든 것도 종려나무 가지였는데, 당시 이는 승리와 왕권을 상징하는 표지였습니다. 이 주일의 공식 명칭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이후 '성지 주일'에서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입성의 기쁨만이 아니라 수난의 의미를 함께 담기 위해서입니다. 위와 같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전례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전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히 성주간을 시작해 보세요!





십자가를 향해가시는 그리스도



정현진 라우렌시오 신부 | 교구전례위원회 위원

사순 시기에 접어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참회와 절제의 생활을 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사순 시기가 무르익을 무렵, 교회는 성주간 전례를 거행하며 그리스도의 신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부활의 기쁨을 길어내기 위한 십자가 여정을 떠납니다. 교회는 이 거룩한 주간의 전례를 특별한 양식으로 준비하는데,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마치 '감촉하듯 생생하게' 묵상하도록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주간을 시작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합니다. 이 예식에서는 주님의 겸손한 행렬, 당신을 향한 백성들의 노래 그리고 당신을 환호하며 흔들리는 나뭇가지 등과 같은 '감각적인 표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신자들이 이를 바라보고 만지고 감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현장으로 용감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묵상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미사 거행에 참여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찢은 이를 바라볼 것이다.”(요한 19,37 참조, 즈카 12,10)

우리는 사실 크고 작은 죄의 창점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찢이기도 했고, 지금도 찢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호산나”로 환호하던 이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며 격분하던 이들이 알고 보니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처럼요. 축복받은 나뭇가지는 이를 상기시킵니다. 오늘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호하지만, 죄를 지어 주님께 상처를 드리기도 하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임을 돌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토록 나약하기에 당신께서 몸소 십자가를 자원하여 끌어안으셨음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후, 각자가 손에 쥐고 흔들던 성지를 집으로 가져가 십자가고상 뒤에 잘 맞추어 걸어둡니다.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죄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 형상을 볼 때마다 주님을 환호하던 그때 손에 들었던 성지도 함께 바라보며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을 들으면, 이런 취지와 달리 성지가 미신적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성지 조각이 말라 가루처럼 바닥에 떨어지면 그것도 모아야 할까요?” 성수를 뿌려 나뭇가지를 축복했다고 가지 자체가 신성을 띠거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가루들을 청소했다고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가 축복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느님의 복을 간청하는 것입니다.(축복예식 총지침 12항 참조) 성지 축복 기도문이 이를 잘 설명합니다.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지는 예수님께서 부활 신비를 완성하려고 반드시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을 십자가고상에 달면서, 여러분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 예수님께서 언제나 편하게 입성하시도록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사제수품
60주년

축하
드립니다



심용섭
아우구스티노 신부

“거룩함을 주는 사람
(=Sacerdos라)”



김수길
루도비코 신부

“스승님께서 오셨는데
너를 부르신다.”
(요한 11,28)



안상인
요셉 신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탈출 3,12)



정무웅
엠마누엘 신부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마테 7,12)



김경희
바오로 신부

“나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말라!”
(이사 41,10)



곽성민
베네딕토 신부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1테살 5,16-18)

사제수품
50주년

축하
드립니다



박기주
미카엘 신부

“내 안에 머물러라”
(요한 15,4)



유원봉
아우구스티노 신부



조군호
요셉 신부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로마 12,15)



김상균
세례자요한 신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오늘(3월 29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사순 시기 이웃 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희생하고 특별히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몫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2차 헌금으로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유 축성 미사 및 사제수품 60주년 · 50주년 축하식

교구 사제단의 단일성은 물론 주교와 사제들의 일치를 드러내는 성주간 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가 4월 2일(목) 오전 10시,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있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후 같은 장소에서 사제수품 60주년·50주년 축하 행사가 진행됩니다.

주님 수난 성금요일(4월 3일)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35년 3월 30일 이종순 요셉 신부(46세)
- 1982년 4월 3일 양기섭 베드로 신부(77세)
- 2022년 4월 1일 유봉준 토마스 신부(92세)

주교회의 2026년 춘계 정기총회

- ① 최근 중동에서 발생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우려를 표하며, 하루속히 적대적인 무력 행위가 중단되어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관심사는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사순 시기 동안 특별히 세계 평화를 위하여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로 하고, 신자들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하였다.
- ② 나주 윤 율리아와 그의 추종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어 국내외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신자들이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를 통하여 아시아 국가 가톨릭 교회에도 주의를 요청하였다. 한편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대주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소통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령을 마련하여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알릴 계획이다.
- ③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ABC) 시노달리타스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아시아 국가 시노드 팀 모임'[2026년 8월 31일(월)~9월 4일(금), 태국 방콕 대교구 반 푸 완(Baan Phu Waan)]에 한국 대표 주교로 정순택 대주교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이 모임에는 박용욱 신부(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장), 김영식 신부(서울대교구 시노드 교구이행단계 담당), 김은숙 수녀(미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한국 관구장)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 ④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이하 'WYD')와 관련하여 교구별 교구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발대식 현황,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의 국내 순례 현황, 순례자 신청접수 계획과 교구대회 홈페이지 개설 소식, 2027 서울 WYD 관련 기도문과 홍보 계획, 서울 WYD 제2차 국제회의와 '교구대회 EXPO' 개최 계획, 2027 서울 WYD 본대회 관련 제반 상황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www.cbck.or.kr>) - 소식' 참조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윤고는 개인전: 1전시실
홍은솔 개인전: 2전시실
가톨릭말씀새김예술가회 전시회: 3전시실
전시 일정: 4월 3일(금)~12일(주일)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4월 9일(목) 오후 2시~3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포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김동원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명동 가톨릭회관 CPE센터: 02)727-2434
서울성모병원 CPE센터: 02)3147-9428
수원 성빈센트병원 CPE센터: 031)249-7950

가톨릭 교육자의 날

신앙인 학교 교사들이 함께 기도와 친교를 나누며 위로받는 시간 / 대상: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중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때: 4월 25일(토) 오전 9시~오후 4시(특강-나눔-미사)
곳: 동성중·고등학교(혜화) / 회비: 3만원
신청: 온라인신청서(https://kycs.or.kr/팝업_참조)
문의: 02)566-5456, 02)553-7322 학교사목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 1) 생명을 위한 월례 미사
때, 곳: 4월 1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패밀리아채플 / 문의: 02)727-2351
- 2) 청년 생명교육
주제: 죽음의 문화 / 대상: 생명에 관심이 있는 청년
때, 곳: 4월 25일(토) 15시~17시, 생명위원회 5층 교육실 / 문의: 02)727-2353
회비: 1만원 / 신청방법: 생명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4월 5일(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4월 6일(월) 13시30분~16시30분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접수 안내

신청: 3월 30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회비: 1인 7천원 /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자세한 순례코스 및 안내사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때	코스	비고
4월 4일(토)	1코스 말씀의 길(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4월 7일(화)	2코스 생명의 길(가회동성당~중림동 약현성당)	
4월 11일(토)	3-1코스 일치의 길(당고개 순교성지~절두산 순교성지)	
4월 15일(수)	저녁애 순례길(성곽길코스)	저녁 7시 시작
4월 25일(토)	3-2코스 일치의 길(노고산 성지~삼선산성지)	일부 구간 대중교통 이용
4월 29일(수)	저녁애 순례길(창경궁코스)	저녁 7시 시작

자연과 함께하는 '사제, 수도자' 피정

때: 7월 27일~8월 5일(9박10일) / 회비: 80만원
곳: 제주도 '엠마오연수원' / 피정 지도: 이영근 신부
문의: 010-6462-0410

2026 역사서 4월 특강

대상: 천주교 신자(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 조창수 신부
때, 곳: 4월 10일(금)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내용: 역사서(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후기 역사서) 특강
2027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순례 피정: 3월 9일~23일(피정지도: 조창수 신부)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k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2026/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문의: 02)727-2047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접수

청년 Hello 기도 : 도심 속 청년 피정	4월 7일 매일 첫째(화) 19시30분~21시
내 영혼의 글쓰기	4월 8일~5월 13일 매주(수) 11시~12시30분
마음을 쉬게 하는 선, 쉼(글원데이)	4월 8일 매주(수) 14시~17시
부활 샌드아트(원데이)	4월 8일 매주(수) 14시~17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기도 훈련	4월 8일~5월 27일 매주(수) 19시~20시30분
나만의 세례명 묵주 만들기(원데이)	4월 9일 매주(목) 14시~17시
쓰담쓰담, 그림책으로 내 마음 돌리기	4월 10일~5월 15일 매주(금) 11시~12시30분
성유일도 : 모든 이를 위한 청원 기도	4월 10일~5월 15일 매주(금) 15시~16시30분
코베는 손뜨개 재래로 만들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월) 14시~16시
아크릴 물감으로 성화그리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월) 15시~17시
민화로 성경 속 식물 그리기	4월 13일~5월 18일 매주(월) 19시~21시
커피가 익히는 음료라?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4시~16시
신앙의 빛을 담다 - 글라스아트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5시30분~17시(첫반)·19시~20시30분(저녁반)
파스텔 감성, 가톨릭 초코아트	4월 14일~5월 19일 매주(화) 19시~21시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전진상 영성센터 월피정 / 문의: 02)726-0700
 나의 심혼과 그리스도 영성 / www.jiscen.or.kr
 때, 곳: 4월 25일(토) 10시~15시, 명동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 문의: 010-3340-0201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성경완독: 4월 17일(금)~25일(토), 6월 19일(금)~27일(토)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4월 12일(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제5차 미리내 성령 묵상 피정
 강사: 한연흠, 한승주, 이관배 신부 외
 때: 6월 19일(금) 13시~21일(주일) 15시 / 회비: 22만원
 곳: 미리내 묵상의 집(주최) / 문의: 010-4416-6445

수도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입문 피정
 지도: 허성준 신부 외 / 회비: 42만원(1인1실)
 때: 5월 14일(목)~17일(주일)
 곳: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애관 수도원 내)
 문의: 010-4731-2468 최 안나(애관 성 베네딕도회)

젊은이 성체 조배의 밤 성지순례(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때, 곳: 4월 11일(토), 배론 성지(주일 미사)
 출발: 오전 9시30분, 가톨릭회관(명동)
 회비: 5만원(점심·간식 제공) / 입금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토아울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3월 31일 원희연 회장 4월 7일 이재을 신부

예수회 말씀의 집 영신수련 피정(식별·선택)
 문의: 031)254-8950 수원 말씀의 집
 8일 4월 10일~19일, 5월 1일~10일
 기타 5월 17일(음악), 5월 22일~25일(디지털 디톡스)

가정선교회 4월 피정
 때, 곳: 12시30분~16시50분,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성가정 영성 피정 4월 1일(수)/마진우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4월 11일(토)/이상재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전인적인 치유 피정 4월 18일(토)/박현민 신부

피아골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엠마오(마산 거제 여행) 4월 9일~11일
 피아골 7월 17일~19일, 7월 24일~26일, 9월 18일~19일
 수도원순례 4월 21일~24일 / 유덕현 아빠스
 흥성남 신부 아키타 5월 25일~29일, 북해도 8월 24일~27일, 고토·나가사키 9월 7일~11일, 홍콩·마카오 10월 26일~29일

성경 안에서 치유 대피정(지혜의 샘)
 강사: 송봉모 신부(강의), 이상희 신부(미사·안수), 한영임 회장 / 문의: 032)343-1871, 010-3248-9705
 때, 곳: 4월 13일(월) 10시~17시, 인천교구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61-1, 중동역5분거리) / 점심 무료 제공

교육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청 학력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02)727-2471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4월 6일부터 (월)~(토) 10주
 문의: 02)338-3793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성체조배 기도교육
 때: 4월 18일~6월 6일 매주(토) 10시30분~13시30분(8주간) /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베네딕도에게 배우는 그리스도인의 삶
 주제: 베네딕도도와 생태영성 / 회비: 1만원
 때, 곳: 4월 11일(토) 14시~17시, 성분도 은혜의 뜰(올리베라도 성베네딕도 수녀회·주최) / 문의(접수): 02)318-242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4길 14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말씀의 집 성서백주간 모임(성서백주간)
 성경 전체를 통독, 묵상, 나눔, 실천하는 모임으로 서 분당 내에서 백주간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새로운 반을 개설합니다 / 문의: 010-3557-4410
 곳: 말씀의 집(신월동) / 4월 3일까지 선착순 접수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추가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추가 모집: 3월 31일(화)까지 원서 접수
 문의: 02)745-8339(ci.catholic.or.kr)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4월 13일(월)~24일(금) / 전형일: 5월 15일(금)
 곳: 최양업홀(전철 2·5호선 충정로역, 1·4호선 서울역하차)
 문의: 02)740-9876(http://songsin.catholic.ac.kr/music)
 석사 과정(5학기) 오르간, 합창지휘, 작곡(CCM 작곡 포함)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모집

도미니코 평신도회(재속회) 회원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만 63세 이하 성인 남녀
 문의: 010-7724-4036

서초동성당 쉼터 단원 모집 / 문의: 010-2768-0516
 성남아트센터 나인십포니 합창 단원 및 전공자 모집
 유급(전공): 테너·트럼펫·오보에·팀파니 / (주일) 21시 미사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청소년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보조교사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성 김대건 성가단 상반기 정기 단원 모집
 대상: 음악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만50세 미만)
 때: 매주(수) 19시 / 문의: 010-2272-0180
 곳: 명동대성당 내 영성센터 A304

미사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부활성야 미사
 때, 곳: 4월 4일(토) 오후 3시,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 문의: 02)3147-2402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 미사
 때: 4월 11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성바로수도회 협력자 월례 미사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4월 6일(월)~8일(수) 11시, 본원(미아동)
 문의: 010-8684-1360

첫토요일 신심 미사(파타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성모님의 요청대로 미사
 때, 곳: 4월 11일(토) 9시~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2)756-3473, 010-2565-3473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4월 1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심양동 선교분당 재활용매장 '살림'
 경영난으로 사업을 종료합니다 도와주신 인인들에게 감사하며 하느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주열 신부와 살림 가족 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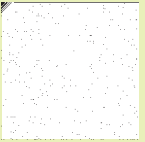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장충동 / 문의: 010-9139-1937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counseling-center.catholic.ac.kr

통합 심리 영성 프로그램 / 문의: 010-5816-8480
 대면·비대면모임 선택, 총 6회기모임 / 대상: 모든 청년
 주최: 뜻쟁 포교 베네딕도 수녀회 한강진 분원
 Zoom 모임 매월 둘째주(화) 4월 14일 20시
 대면 모임 4월 19일(주일) 14시, 한강진 분원(전철 6호선)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개별적 협의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광진구 아차산로 32길 13	010-9695-1366 로메라 수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민들레의 영토》 출간 50주년 기념 이해인 수녀 북콘서트

일시 4월 11일 (토) 2시 | 장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민들레의 영토》 출간 50주년 기념
독자와의 만남



◀ 북콘서트 신청하기



해인의 바다

이해인 수녀님 에세이

이해인 지음 | 2만6천원

이해인 수녀님의 깊은 서랍 속,
소중하게 간직해온 기도와 묵상을 만나다



민들레의 영토

출간 50주년 기념판

이해인 지음 | 1만5천원

시인 수녀님의 첫 마음이 담긴 시집
한 수도자의 아름다운 고백

신간



시편, 기도의 언어

장 피에르 프레보스트 지음, 이기락 신부 옮김
1만8천원

신앙 고백의 노래, 시편
삶으로 스며드는 기도의 언어들

시편 속 40개의 핵심 단어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웹진

서울주보 한정 특별 선공개

살레시오회 이창민 마르치아노 신부님

“부활의 빛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로 찾아온다”

#유퀴즈 출연 이창민 신부님의
아티클을 지금 만나보세요!



◎ 2026년 성주간 수난감실 성체조배 일정표

·일시/장소 : 4월 2일(목)~4월 3일(금) / 지하성당

일자	시간	봉사 단체	주관 단체
4/2 (목)	22:00-23:00	성음악봉사분과, 사회사목봉사분과, 아미쿠스, 일반신자	가톨릭여성 합창단
	23:00-00:00	회장단, 기획총무팀, 일반신자	회 장 단
4/3 (금)	00:00-01:00	전례봉사분과(A조), 일반신자	전례봉사분과
	01:00-02:00	연령회, 노년봉사분과, 일반신자	연 령 회
	02:00-03:00	본당지원봉사분과, 일반신자	본당지원봉사분과
	03:00-04:00	종현회, 일반신자	종 현 회
	04:00-05:00	대건회, 일반신자	대 건 회
	05:00-06:00	범우회, 일반신자	범 우 회
	06:00-07:00	광암회, 시설봉사분과, 일반신자	광 암 회
	07:00-08:00	하상회, 일반신자	하 상 회
	08:00-09:00	만천회, 일반신자	만 천 회
	09:00-10:0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Cu.(A조), 일반신자	은총Cu.
	10:00-11:0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Cu.(B조), 일반신자	은총Cu.
	11:00-12: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Cu.(A조), 일반신자	천주Cu.
	12:00-13:00	전례봉사분과(B조), 일반신자	전례봉사분과
	13:00-14:00	울프레야, 가톨릭성서모임, 일반신자	울프레야
	14:00-15:00	본당지원봉사분과, 일반신자	본당지원봉사분과
15:00-16:00	선교부, 예비신자나눔교리봉사회, 일반신자	예비신자나눔교리 봉사회	
16:00-17:00	가정생명봉사분과, 구역봉사분과, 문화예술봉사분과, 일반신자	가정생명 봉사분과	
17:00-18:00	천주의 성모 마리아 Cu.(B조), 일반신자	천주Cu.	
18:00-19:00	성서백주간, M&T, 3545청년, 청년봉사분과, 일반신자	성서백주간	

※각 단체는 배정된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특히 주관 단체는 미리 준비하셔서 전례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 명동대성당 장년봉사분과 봉사 회원 모집

※모집조건 -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은 만 45세~65세 남성 교우

※봉사내용 - 명동성당 사목회 주요 봉사

※제출서류 -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종현회 : 매일 넷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2838-6401

·대건회 : 짝수달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화합 ☎ 010-9011-8990

·범우회 : 매일 둘째주 목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6340-3528

·광암회 : 매일 셋째주 일요일 오후 5시 화합 ☎ 010-8337-6972

·만천회 : 매일 셋째주 수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8611-4097

·하상회 : 매일 셋째주 토요일 오후 7시 화합 ☎ 010-3687-2322

◎ 명동대성당 미사안내봉사단 단원 모집

·활 동 : 토요일 오후 6시 미사, 주일 오후 6시 미사

·자격조건 : 천주교 세례 받은 신자

·제출서류 : 입단 신청서, 교적증명서 <밀봉 요망>

·문 의 : ☎ 010-5894-9943 (문자)

이메일(samlomsoo@gmail.com)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성당소식→단체모집 참고

◎ 2026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견진성사 : 5월 24일(주일) 오후 2시 / 대성전

·교리시간 : 4월 12일 ~ 5월 17일 (매 주일) 6주간

오후 1시 30분 ~ 3시 30분 / 대면 수업

★★ 오후 1시 40분까지만 출석으로 인정,

6주 모두 참석 시 견진성사 가능 ★★

·신청대상 : 천주교 세례성사를 받고 첫영성체를 한 20세 이상 신자 (단, 세례성사를 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함)

☞ 2026년 1월 새 영세자까지

·교리장소 : 코스트홀 (문화관 2층)

·교리교재 :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들」, 가톨릭출판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펴

※교재는 성물방이나 가톨릭출판사(www.catholicbook.kr)

에서 각자 구입하여 지참

·신청방법 : 사전·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3월 29일(주일)까지 본당 사무실 방문 접수

※월요일 휴무

·구비서류 : 빠짐없이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 가능

대상자	구비서류	발급장소
명동성당 교적신자	① 증명(또는 반명함)사진 1장	-
	② 세례성사증명서	교적 본당
	③ 견진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④ 견진 대부모의 견진성사증명서	대부모님의 견진본당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타 본당 교적신자	상기 구비서류(①~⑤)	
	⑥ 신청자 본인 교적증명서	교적 본당
	⑦ 견진의뢰서	

※'⑤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장애(=조당)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함이니 '상세내역'으로 발급 후 밀봉하여 제출하십시오.

(☞ 6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사본도 제출 가능)

※'⑦ 견진의뢰서'는 견진신청서 본문 중앙에 명시돼 있으며,

교적 본당 사무실을 통해 반드시 주임 신부님의 서명 또는 직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5월 3일(주일)까지 '접수비(현금 10,000원)'와 '견진 성사 감사예물'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명동대성당 장년·청장년 레지오 마리아 단원 모집

·공통사항 : 천주교 세례 받은 남녀 (교적 본당 무관)

·입단문의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31-3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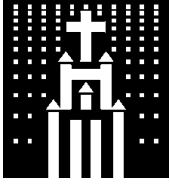
- 천주의 성모 마리아 꾸리아

(☞ 46~70세 장년)

단장 ☎ 010-2408-2882

- 평화의 모후 꾸리아 (☞ 35~45세 청장년)

단장 ☎ 010-5054-6495 (문자 요망)



774-1784(대)
753-1784(FAX)
본당 연령회
010-6375-1784

진주교시흥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성품(아우구스티노) 신부
수석부주임 나창식(안드레아) 신부
청년문화술 나연수(안토니오) 신부
전례·성음악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선교·교육 문재현(바오로) 신부
주일학교·양육 이승규(토마스) 신부
외국인전담사목 이사악 세베로 신부
주교좌성음악감독 최호영(사도요한) 신부

미사 성가	입당 : 10	봉헌 : 215, 511, 340	성체 : 497, 180, 172	파견 : 125
-------	---------	--------------------	--------------------	----------

◎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오늘은 사순절 이웃돕기 특별헌금이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통과 수난을 묵상하면서 행한 희생, 특별히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나눔의 정신으로 단식한 것을 2차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 파스카 성삼일 전례 안내

일 자	내용/시간	집전자	비 고
4월 2일 성목요일	성유 축성 미사 (오전10시)	정순택 대주교님	헌금있음
	주님 만찬 미사 (오후 8시)	이경상 주교님	
4월 3일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구요비 주교님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시)	구요비 주교님	
4월 4일 파스카성야	부활 성야 미사 (오후 8시)	정순택 대주교님	
4월 5일 부활대축일	낮 12시 (교중미사) : 정순택 대주교님 ※ 미사는 주일 미사 시간과 동일 (단, 오전 7시 미사는 없습니다.)		

- 4월 3일 주님 수난 성금요일은 예루살렘 성지를 위한 특별헌금입니다.
- ※성 목요일부터 파스카 성야까지는 위 전례 외에 다른 미사가 없습니다.

◎ 4월 예비신자 교리반 (6개월 과정)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목요일반	오후 7:30	교구청본관 402호	이세호 (시몬) 신부
토요일반	오후 4:00	교구청 본관 401호	항 루시아 수녀

- 목요/토요일반 택1 (2시간 교리수업, 주일미사 참여 필수)
- 환영식 : 4/5(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
- 첫수업 : 4/9(목) 19:30 교구청본관 501호, 4/11(토) 16:00
- 전화·사전 신청 불가 ※만 19세 이상만 신청가능
- 준비물 : 교재 및 등록비 2만원, 반명함판 사진 1매

◎ 병자 영성체 : 4/1(수) 오전 9시

◎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초배는 4/9(목)에 진행됩니다.**
·일시/장소 : 4/9(목) 오후 7시 40분 / 대성전

—하느님의 종, 바보 김수환 추기경—

우리는 ‘너희들이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를 생활로써 증거해 달라.’고 하는 사회 요구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모든 것을 바쳐서 사회에 봉사하는 ‘세상 속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中)

움켜쥐고 있으면 혼자서 기쁠 수 있겠으나 이웃과 나누면 기쁨은 배가되고 행복은 기쁨의 또 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 부활 집중 판공성사

일 자	시 간	장 소
3월 29일(일)	10:00~20:00	상설고해소 (영성센터 1층 / 옛 계성여고)
3월 30일(월)		
3월 31일(화)	11:00~20:00	
4월 1일(수)		

- ※3/30(월)은 성직자·수도자 및 모든 신자를 위한 고해성사로 진행
- 상설고해소 휴무 : 4/2(목)~4/6(월)
- 상설고해소 재개 : 4/7(화) 11:00부터
- 명동교적신자 성사표는 본당 사무실에서 배부 중

◎ 천사(천원의 사랑)가 되어 주세요!

- 3/1(일) 천사 모금액 12,705,000원
본당지원 1,270,500원
- 3월에 ‘쪽방촌 반찬나눔’, ‘청년밥상 문간’, ‘청년밥집’에 천사의 사랑기금(13,975,500원)을 전달 예정입니다.
- 4/5(일)에도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있는 ‘마푸토 대신학교’와 ‘리칭가교구 소신학교’를 위한 천사가 되어주세요.

◎ 2026년 상반기 견진성사 신청

※자세한 내용은 ‘주보 안쪽 면’ 참고해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3/16-3/22).....22,717,000
- 사순 제 5 주일 헌금.....39,947,171
- 감사헌금 (3/16-3/22).....3,480,000
- 김글라라 / 김 다비드 / 김 라피엘 / 김 라피엘라 / 김 로사리아
김 마태아 / 김 발렌티노 / 김 비시아 / 도 로사 / 박 울리안나
서 안드레아 / 신 글라라 / 신 베르다 / 이 마리아 / 이 베드로
이 카타리나 / 임 사무엘 / 현 베로니카 / 익명(1)
주일학교 지원

미사 (Mass)	주일미사 (일요일)	육아 세례 (Baptism of Infants)			주일헌금 봉헌 QR 코드
		매월 첫째 주일 13:30 ※직전 금요일까지 접수			
	고해성사 (Confession)				
	토-일	10:00 - 20:00	화-금	11:00 - 20:00	
주일미사 (토요일)	18:00(안젤루스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미사), 19:00(3545 청년미사)			월	13:00 - 17:00 (성직자·수도자 대상) ※일반신자는 다른 요일을 이용하십시오.
	평일미사	월	07:00, 18:00		
평일미사	화-금	07:00, 18:00, 19:00	외국인을 위한 고해성사 (Confession for Internationals)		
	토	07:00			
성지미사	월-토	10:00	Sun.	08:30 - 08:50	
※모든 미사는 '대성당'에서 봉헌합니다.			Sat.	16:00 - 17:00	